

“군민 누구나 배울 권리를”...장성, 평생교육 자족도시 성큼

대학생 등록금·주거비 지원 등 순항 입학 축하금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청소년문화의집’ 내년 상반기 준공

장성군이 교육부 주관 평생학습도시에 최종 선정되며, 요람에서 무덤까지 군민 누구나 배울 권리를 누리는 진정한 평생교육 자족 도시로 거듭난다는 구상이다.

12일 장성군에 따르면 지난 10일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발표한 ‘2026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결과 신규 평생학습도시에 선정됐다.

평생학습도시는 국민 누구나 평생학습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교육 역량과 학습 접근성, 네트워크 구축망 등을 종합 평가해 지정한다.

군은 전남 조직 신설과 읍면 거점 확대는 물론, 세계 최장수 프로그램인 장성아카데미 운영 성과 등을 앞세워 지역 기반 학습 체계의 탁월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지정으로 군은 ▲평생학습도시 지정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졸업 예정 대학생 주거비 지원 ▲초·중·고 신입생 입학 축하금 ▲청소년수당 등 5대 공약 이행에 성공 다갔다.

학부모의 호응이 가장 뜨거운 대학생 등록금 지원은 부모가 장성에 3년 이상 거주한 대학생에게 학기당 최대 200만원씩 8학기까지 실 납부액을 지원하는 핵심 사업이다.

지난 2023년 2학기부터 지난해까지 총 1천207명의 대학생에게 18억3700만원의 학비가 지급됐고, 여기에 졸업을 앞둔 대학생에게는 기숙사비나 월세를 월 30만원 한도로 지원해 사회 진출의 든든한 디딤돌을 놓고 있다.



김한중 장성군수가(가운데)와 관계자들이 최근 군청 회의실에서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한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축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성군 제공>

초·중·고교 신입생을 위한 입학 축하금도 순조롭게 안착했다. 초등학교 10만원,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30만원을 지역화폐인 장성사랑상품권으로 차등 지급한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2천160명에게 4억4700만원이 지급돼 가게 부담 경감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올해 지원금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진행된다.

이와 함께 13-18세 지역 청소년에게 10만원 상당의 바우처 포인트를 제공하는 꿈키움바우처(청소년수당)도 안착해 활발히 운영 중이다.

이밖에 지상 2층 규모로 노래연습실과 영화감상실, 동아리실 등을 최신식으로 갖춘 청소년들의 문화 예술 거점인 삼계면 청소년문화의집이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이며, 총사업비 76억원 중 61억원을 도비로 확보해 군비 부담을 최소화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민선 8기 교육 분야 공약 이행 성과를 바탕으로 배움이 개인의 성장을 넘어 지역의 미래 경쟁력이 되는 진정한 평생학습도시를 완성하겠다”며 “군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일류 교육 장성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김문태기자

순천시 첫 추경 1조7천여억원 편성 민생 방점...복지·정주 인프라 박차

본예산비 1천217억원 증액 시민 대화 수렴안 31억 투입

순천시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며 민생 안정과 지역발전 기반 다지기에 나섰다.

12일 순천시에 따르면 이번 1회 추경 규모는 1조6천886억원으로 본예산 1조5천669억원보다 1천217억원(7.8%) 늘어난 수치다.

일반회계는 866억원(6.2%) 증액된 1조4천621억원, 특별회계는 361억원(18.9%) 늘어난 2천265억원으로 각각 확정되며 확고한 재정 건전성 기조를 유지했다.

특히 연초에 진행된 ‘시민과의 대화’에서 수렴된 건의 사항과 생활 밀착형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해 접수된 62건의 제안 사업 중 시급한 50건(17억원)은 본예산을 통해 이미 추진 중이며, 이번 추경에는 29건의 설계비 등 31억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했다.

사회 안전망 강화와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복지 예산은 본예산 대비 173억원(3.2%), 농업

예산은 98억원(5.3%) 각각 증액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북부노인복지센터 건립 30억원,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19억원, 청년 문화복지카드 18억원 등이 반영됐다.

아울러 농어업인 공익수당 16억원, 농작물 재해 보험 10억원 등 농어촌 활력 예산도 꼼꼼히 챙겼다.

이밖에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굴착한 인프라 사업인 시민광장 조성에 74억원, 육천 하천 재해 예방 사업 30억원, 서면 강정수변공원 주차장 조성 10억원 등을 투입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수렴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반영해 편성한 예산”이라며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해 지역 발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순천시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순천=양홍렬기자



고흥군이 상습 쓰레기 투기 구역과 방치된 공터를 탈바꿈시키는 ‘한평정원’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지난해 고흥 영남면 주민들이 정원 조성하고 있는 모습. <고흥군 제공>

고흥군 “방치된 공터 ‘정원’으로 탈바꿈”

1억1천여만원 투입 16곳 조성

고흥군은 12일 “생활폐기물 상습 불법 투기 구역과 방치된 공터를 아름다운 정원으로 탈바꿈시키는 ‘2026년 한평정원 조성 및 정비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총사업비 1억1천200만원을 투입해 읍·면별로 1곳씩 총 16곳의 신규 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조성된 기존 정원 284개소에 대해서도 재료를 지원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환경 정비를 넘어 주민과 사회단체가 직접 디자인하고 관리하는 민간 주도형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정원의 사후 관리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단년생 계절꽃 대신 다년생 꽃 식재를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대상지별로 전담 주민이나 단체를 지정해 지속 가능한 밀착 관리를 맡기고, 오는 5월과 10월 두 차례 추진 현황을 평가해 우수 읍·면에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고흥군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불법 투기가 잦은 구역을 중심으로 한평정원을 꾸준히 확대 조성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고흥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성학기자

최용만 담양군의원, ‘지방의정봉사대상’ 수상

담양군의회는 12일 “전날 최용만 의원(사진 오른쪽)이 담양비즈니스에서 열린 ‘제312회 전남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에서 ‘지방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방의정봉사대상은 전남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지방의정 활동에 기여한 기초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최 의원은 제9대 전반기 담양군의회 의장 역임 당시의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 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조례 제·개정 등 입법 활동을 수행하며 군민의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했다.

이밖에 최 의원은 ‘담양군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해 효율적인 주차 공간 관



리를 통한 생활 밀착형 입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최 의원은 “뜻깊은 상을 받게 돼 감사하고,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낮은 자세로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기자

여수해수청, 봄철 농무기 해양 사고 예방 추진

여객선·위험물 운반선 집중 점검

여수해수청이 봄철 짙은 안개와 기상 악화로 인한 해양 사고를 막기 위해 선제적인 예방 활동에 돌입했다.

12일 여수해수청에 따르면 이달부터 오는 5월까지 안개가 자욱하게 끼는 농무기를 맞아 선박 운항시 시계 제한 상황에 대비한 ‘2026년 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여수·광양항 일대는 이달 강한 바람과 너울

성 파도를 시작으로 오는 5월까지 짙은 안개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여수해수청은 여객선 등 다중이용시설 사고 예방, 위험물 운반선 안전 관리 준수, 해양 안전 문화 확산 등 3대 중점 과제를 수립했다.

우선 연안 여객선을 대상으로 무중 항법과 갑속 항해, 레이더 사용 등 실질적인 항해 교육을 대폭 강화한다.

또한 항만과 어항, 항로 표지 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물 운반선의 운항 부주의 등 인적 과실 예방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더불어 여객 터미널 이용 시설에 대한 관계 기관 합동 점검을 추진하고, 5월 연휴 기간을 대비해 여객선 이용객 대상 해양 안전 캠페인도 함께 전개할 계획이다.

이수진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일교차가 큰 봄철은 기상 악화로 인해 해양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시기”라며 “철저한 현장 점검과 교육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해양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기자

보성군, 유관기관 공익직불제 업무협의

농관원 등과 부정수급 예방 등 논의

보성군이 유관기관과 손잡고 올해 공익직불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 농가 소득 안정 지

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12일 보성군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성사무소에서 농관원 보성사무소,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 관계자 등이 참석

한 가운데 ‘2026년 공익직불제 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농업인의 편익을 높이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올해 달라지는 직불사업 홍보를 비롯해 직불금 금액 우려 농지 사전 안내, 의무 교육 이수율 제고, 부정수급 합동 조사 등 실무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사진>

특히 보성군과 농관원은 별도의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실제 경작 여부와 의무 준수사항 이행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농업인에게 한 차원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며 “농가에서도 직불금이 감액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의무 준수사항을 철저히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성=임병연기자



“일상을 예술로 바꾸는 가드닝에 빠져보세요”

구례군, 정원관리사 교육생 모집

오는 16일-20일 기초 과정 20명

구례군이 일상 속 정원 가꾸기 문화 확산을 위해 전문 실무 역량을 갖춘 ‘정원관리사’ 양성 교육생을 선착순 모집한다.

12일 구례군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주민을 대상으로 정원관리사 양성 기초 과정 교육생 20명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단순한 식물 재배를 넘어 개인 주거환경과 주변 공간을 직접 디자인하고 관리

하는 역량을 키우는 프로그램이다.

기초 과정은 오는 28일부터 5월30일까지 매주 토요일 진행되며, 식물 기초 이론부터 실제 정원 조성 실습까지 전문가의 심도 있는 지도가 이뤄진다.

기초 과정 이수자와 조경·원예 등 관련 분야 전공자 및 종사자를 위한 심화 과정 교육생 4명도 오는 13일까지 별도 모집한다.

심화 과정은 위탁 교육으로 진행되며, 오는 21일부터 4월24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담양군에 위치한 국립정원문화원에서 운영된다.

/구례=김세중기자